

선박엔진기업, 글로벌 수주 증가 친환경·전동화 등 투자규모 확대

대량선박 건조·친환경 규제 영향
이중연료 분야 등 기술 격차 주효

한화엔진 4340억 신규 계약 체결
HD현대마린엔진
생산설비 보수·개선 등 221억 투자

중국 조선업의 대량 건조 물량과 친환경 규제 대응 수요가 맞물리며 한국 선박엔진 기업으로 발주가 몰리고 있다. 이중연료(DF) 엔진 분야에서의 기술신뢰와 겸증된 운항 레퍼런스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엔진사들은 지난해 수주를 크게 늘렸고, 올해도 연초부터 대형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신설과 생산성 개선 투자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엔진은 최근 공시를 통해 4340억 원 규모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매출의 36.1%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와 지역은 비공개이나 공시에 공급 지역이 아시아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향

물량으로 해석하고 있다. HD현대마린엔진도 이달 들어 중국 조선소와 243억 원, 622억 원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들 간 누적 계약액은 865억 원으로 지난 2024년 매출의 27.4%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주 확대 흐름이 올해도 연초 대형 계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다.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759억 1159만 원(전년 대비 128.6% 증가), 매출 4023억 9622만 원(27.4% 증가)을 기록했다. 한화엔진은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매출 1조 32억 원(14.5% 증가), 영업이익 827억 원(55.1% 증가)을 달성했다.

수주 확대의 배경으로는 조선업 호황과 중국의 대량 건조 물량이 맞물리며 엔진 발주가 증가한 점이 꼽힌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로 DF 엔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주들이 가격보다 운항 안정성과 실선 레퍼런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도 선박엔진 발주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ول투자증권은 HD현대마

린엔진의 올해 영업이익을 1552억 원(전년 잡정치 대비 104% 증가), 영업이익률을 18.1%에서 25.8%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엔진의 저속엔진 매출이 지난해 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진업체들은 수주 증가 국면에서 친환경·전동화 역량 강화와 생산능력 확충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자회사에 2908억 원을 출자해 전기추진·전력자동화 업체 SEAM 인수에 투입했다. 또 창원 본사 선박엔진 생산설비 신설에 802억 원을 투자해 오는 9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HD현대마린엔진은 가스엔진 생산설비 개선과 노후설비 보수, 공정 개선 등에 오는 9월까지 221억 원을 투자한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고, 엔진은 선주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계약과정에서 선주가 신뢰성을 이유로 특정 엔진을 요청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노태문 “AI 기술발전 본질은 일상·실용적 혁신”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삼성 대표이사 최초 월스트리트 기고
“AI 가치, 평범한 순간에서 드러날 것”



삼성전자 대표이사
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올린 건 이번
이 처음인 것으로 전
해졌다.

노 사장은 “AI에 관한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인지도 여부가 아니라 AI가 실제 삶에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느냐”라며 “맥락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 가능하고(Reach) ▲배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며(Openness) ▲안정적 성능과 보안을 내장한(Confidence) AI를 설계해야 한다고 노 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반에 직면한 진짜 과제

는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굳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보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언어, 문화, 사용 맥락 전반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잘 작동해야 한다”며 “개방성은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AI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학습 없이도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AI의 진정한 가치는 벤치마크나 모델 비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참여하며, 일상을 보다 수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2026년형 휘센 출시… ‘AI콜드프리’ 기능 탑재

AI 기반 온도·습도 통합 제어

LG전자가 온도와 습도를 한번에 제어하는 ‘AI콜드프리’ 기능을 최초로 탑재한 2026년형 휘센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2026년형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와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뷰I 프로’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실내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제어해 내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로 맞춤 운전하는 AI콜드프리 ▲고객

의 위치와 공간을 감지해 상황에 맞는 바람을 보내주는 AI바람 등 혁신적인 냉방기능은 물론 ▲AI음성인식 ▲AI 수면 등 차별화된 편의기능으로 고객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냉방 솔루션이 특징이다.

LG전자는 ES사업본부장 석훈 RAC 사업부장은 “온·습도를 한 번에 제어하는 AI콜드프리 기능처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AI의 편리함을 선사하는 2026년형 휘센 오브제컬렉션을 앞세워 프리미엄 AI 에어컨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2026년형 휘센 신제품



삼성전자의 빌딩 통합 솔루션 ‘b.IoT’로 ‘팩토리얼 성수’ 빌딩 운영 상태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 ‘팩토리얼 성수’ 스마트빌딩 인증

스마트스코어 ‘골드’ 등급 획득

삼성전자의 빌딩 통합 솔루션 ‘b.IoT’를 적용한 ‘팩토리얼 성수’ 빌딩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 빌딩 국제 인증 ‘스마트스코어’의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b.IoT’는 공조·조명·전력 등 빌딩 내 주요 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스마트시티 인증 전문기업 ‘와이어드스코어’ 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스마트 빌딩 인증 제도로, 건축물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AI·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의 구현 정도와

실제 효과,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스코어’ 골드 등급을 획득한 ‘팩토리얼 성수’는 2020년 성수역 인근 물류 부지를 개발해 만든 오피스 빌딩으로, 기획 단계부터 삼성전자와 테크 레디 빌딩 콘셉트를 설정해 협업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피링센터 박찬우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AI·디지털 트윈 등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b.IoT’ 솔루션의 편의성과 경쟁력이 검증됐다”며 “AI 기반의 ‘자율 운영 빌딩’ 구현을 목표로 기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60조 ‘캐나다 CPSP’ 수주총력전

캐나다 해군 출신 국방 전문가 영입



한화오션이 최대 6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캐나다 해군 출신 국방 전문가를 현지 법인 지사장으로 영입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CPSP 잠수함 사업을 총괄할 캐나다 현지 법인 지사장으로 글렌 코플랜드(Glenn Copeland·사진) 사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코플랜드 신임 지사장은 캐나다 해군 장교로 임관해 작전 전술 장교, 초기함 부함장 등을 거치며 22년간 복무한 뒤 중령으로 전역했다.

코플랜드 신임 지사장은 캐나다 해군 장교로 임관해 작전 전술 장교, 초기함 부함장 등을 거치며 22년간 복무한 뒤 중령으로 전역했다. 이후 록히드마틴 캐나다에서 할리팩스 초계함 현대화 사업 책임자를 맡아 재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 전반

을 총괄했다. 특히 전투관리시스템(CMS-330)의 사업개발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バス코사지 역방산기업 협회장을 역임하며 지방 정부 및 방산업계와의 협상과 교류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한화오션은 이러한 경력이 CPSP 사업의 핵심 요소인 산업·기술 혁신(ITB) 제안을 고도화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플랜드 신임 지사장은 “한화오션과 함께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며 “캐나다 해군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이 CPSP 사업 수주라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HJ중공업, 美 해군 함정정비협약 체결

5년간 MRO사업 입찰 가능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HJ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 해군 지원함과 전투함을 포함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MSRA는 미 해군이 함정 MRO 수행 역량을 검증한 업체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으로 통한다. 체결 업체는 전투함·호위함 등 주요 함정 MRO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 해군이 제시한 품질과 기술력, 생산시설, 공급망, 보안 시스템, 안전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HJ중공업은 MSRA 체결을 계기로 연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후속 수주와 고품질·납기 준수를 통해 미 해군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미 해군과 MSR A 체결로 글로벌 시장에서 함정 기술력을 공인받고, 미 해군의 주요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MRO 사업 수행에 전력해 미 해군과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